

# 흥미진진 공주

## 가을맞이는 공산성에서

뜨겁게 내리쬐던 햇살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 위세가 점점 약해지는 요즘입니다.  
습기 잔뜩 품은 바람도 청량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분 좋은 콧노래를 선사합니다.  
9월의 가을은 공산성에서 시작할까요?  
1500년 전 갱위강국 백제와 무령왕 이야기를 품은  
공산성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 취임 1주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책에 힘쓸 것”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은 7월 12일 후반기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의정활동의 소회와 공주시 현안과제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운 의장은 먼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도 공주시의회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긴 안목으로 공주시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본다면?

먼저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이러한 의욕과 열정이 의정 성과를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95건, 예산안 및 결산안 7건, 동의안 29건, 기타 22건 등 총153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열띤 감사 활동을 펼친 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113건, ‘건의 및 검토요구’ 144건 등 모두 257건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시민 최우선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의원 12명 전원은 금년 2월 구성된 3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해 중요 분야를 분담하고 각자 의정 연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연구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연구회’,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제로 한 ‘정주여건개선연구회’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택트 통합플랫폼연구회’입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고유의 역할인 자치입법과 집행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고도의 전문성과 식견을 구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으라면?

충남도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공주의료원 한방 진료과를 개설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지역주민의 노인병 치료와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백방으로 노력해서 남공주 일반산업단지에 한국서부발전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하게 된 일입니다.

작년 11월 30일 MOU를 체결하고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강둔치 밤샘주차 문제 해결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금강신관공원은 시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공간인데 대형트럭 중장비 등의 상시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제기하던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장이 있다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불편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송선·동현 신도시에 대한 입장은?

송선·동현 신도시는 성장의 핵인 세종시 외곽과 연접해 있어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마다 인구감소로 고심하는 공주시에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취임 1주년 맞은  
이종운 의장



공주시의회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 1월부터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2023년 10월 첫 삽을 뜰 계획에 있지만 현재 1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대토보상제 시행, 향후 아파트 및 택지보상 시 공주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이 공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과 조례정비 등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약 2만7천196명)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공주는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미래도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하고, 이미 성공을 거둔 프랑스의 정책(출생부터 성년 도달 시까지 매월 일정액 지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대선 공약에 포함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의 이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공주시는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인접한 세종시의 발전을 우리 공주시의 발전 유인으로 활용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인 준비를 위해 행정도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백제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해외유출 백제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고, 우리지역 총절의 상징인 절재 김종서 장군의 선양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 등 집행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주시민에게 한 말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방역시책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의회, 시민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버팀목 같은 의회, 공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국외 소재 백제문화유산의 가치 조명 의정토론회



의정 활동 소식

“삼계탕 드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 ‘월송동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장’ 방문 격려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은 7월 8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초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를 위해 음식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월송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월송동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100가구에 나누어 드릴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종운 의장은 “요즈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심신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특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이렇게 월송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회원들을 격려했다.

월송동새마을회 ‘사랑의 삼계탕 전달식’



‘기억을 그리다’ 서양화 작품 전시

시민예술공간서 7,8월 서양화 동아리 ‘예성’ 전시 열려

공주시의회는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의회 시민예술공간에 ‘기억을 그리다’는 주제로 서양화 작품 20여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적인 서양화 기법의 유화들이 선을 보였는데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을 화폭에 담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예성’은 회원 16명으로 구성된 서양화 동아리로 2007년 공주정보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창작 열정으로 조직돼 201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각종 미술대전에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종운 의장은 “우리가 늘 봐왔던 정겹고 소박한 추억의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겨 있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일상을 잠시 잊고 재충전 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시민예술공간



## 인문여행지 공주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



10년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 공주시 미래 비전의 지향점으로 얻은 결론은 ‘세계유산과 원도심을 활용한 인문여행지로의 키움’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관광도시 공주’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입에 오르는 화두는 ‘머무르는 공주’ 만들기였다.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웅진동에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하룻밤 머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옛 추억을 되살릴 하숙마을이 재현되고 금학생태공원에는 휴양마을도 들어서면서 각각의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수도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룻밤을 지내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갈수록 그들로부터 대두된 불만은 머물며 시간을 할애할 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공주시의 부단한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금씩 풀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주의 매력은 이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관광도시 공주’나 ‘교육도시 공주’로서의 확고한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함축된 표현이며 공주시민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조용하다’ ‘예쁘다’ ‘고즈넉하다’ 등등의 미사여구는 딱히 눈에 보이고, 감정으로 느껴지는 장점이 없을 때 쓰는 애매한 단어이다. 마치 누구의 아기를 보고 나서 ‘참 귀엽다’라고 애매하게 에둘러 포장하는 그 말과 다름이 아니다.

최근 원도심에는 자그마한 갤러리가 늘어나고 동네책방이 수를 더하고 있다. 둘러보면 갤러리마다 색깔과 결이 다르고 책방마다 특색이 있다. 골목마다 공방이 들어서고 다양한 찻집들이 줄을 잇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제민천에 많은 사람들이 느린 걸음으로 찾아들고 골목에는 삼삼오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주변 환경을 그리고 시간을 즐기는 모습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평온함을 즐기러 공주로 찾아들기 시작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음미하면서 더딘 걸음으로 생각의 미로로 찾아들게 하는 품격 있는 인문여행지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공주시의 미래 지향점이다.